

[일반 논문]

성석제 소설의 도가적(道家的) 이해(理解)

A study on the Taoistic Comprehension of Seong SeockJae's novel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김동혁

(단국대 강사)

차례

1. 서론

2. 도가사상적(道家思想的) 이해의 기본적인
시점

3. 성석제 소설 속 도가적(道家的) 인물형의
이해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성석제 소설을 도가적(道家的) 관점에 기인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성석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도가적인 인물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의 고찰을 통해 작품의 깊이 있는 해석과 도가철학이 문학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성석제는 1994년 짧은 소설 모음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성석제는 세편의 장편과, 많은 단편, 콩트, 산문 등을 발표하면서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발산한다. 그의 소설은 말 그대로 작은(小) 이야기(說)이다. 만담에 가까운 정도로 희극성을 가진 그의 소설은 고대 동아시아 서사문학과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동아시아 소설에서 ‘소(小)’가 가리키는 것은 ‘쓸모없음’, ‘천박함’, ‘잡스러움’, ‘비현실성’, ‘황당무계함’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¹⁾

성석제의 소설에 등장하는 바보, 깡패, 노름꾼, 춤꾼, 술꾼, 사기꾼 등은 이러

한 동아시아 서사문학에서 소설이 담았던 ‘소(小)’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동안 소설의 가치는 과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누구도 소설을 변방의 잡스러운 이야기쯤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설은 진지하고 엄숙한 사유의 세계로 빠져 들었고, 시대와 사회를 논하고 그 진로를 고민하는 고찰의 장이 되었다. 이런 소설의 권위에 반기를 들 듯 등장한 성석제의 소설은 과장과 풍자, 역설과 반어 등을 통한 ‘웃긴’ 이야기를 전면에서 드러내면서 작가 스스로가 재담가이고 이야기꾼이라는 명함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성석제의 작가적 개성은 그가 권위주의나 엄숙주의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¹⁾ 이런 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소설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앞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고행이 아니라 자유로운 즐길 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였다.²⁾ 또한 독자들은 그의 소설을 통해 그 동안 소설이 가지고 있는 딱딱하고 심각한 주제와 시대의 암울함과 차가운 현실이 쉽고 가벼운 상태로 변화 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한결 즐거운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에서 본 연구는 시작한다. 소설은 작가의 창작 태도에서 작품의 성향이 결정되고 작품 내 인물의 유형이 만들어진다. 기존 권위주의와 엄숙주의에서 탄생한 소설 속 인물의 유형은 유가(儒家)적인 해석이 가능한 ‘진(進)’을 추구하는 인물이 주가 되었다. 유가적인물의 탄생은 사회와 개인이 나아가야 할 진로가 그 중심적 배경이 된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근본은 사회와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동양 사상에서 ‘진(進)’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유가 사상이 지배담론이라고 한다면, 도가(道家) 사상은 비판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³⁾ ‘진(進)’을 추구하는 유가 사상에 반해 도가 사상은 ‘귀(歸)’를 추구한다. 도가 사상에서는 세계와 인간이 ‘진(進)’하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인식한다. 태양은 뜨고 지고를 반복하고, 달은 차고 이지러지는 것을 반복한다. 사계절이 순환하고 생명체의

1) 한수영, 「웃음에 관한 두 개의 변주」, 《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여름호, p.163.

2) 서영재, 「장래, 웃음, 이야기의 윤리」, 《문화동네》, 2003년 여름호, p.323.

3) 진정석, 「길 위의 소설, 소설의 길」,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p.119.

4)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04, p.253.

탄생과 사멸 역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귀(歸)’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본다. 유가에서 인간중심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도가에서는 자연중심주의가 그 근본이 된다. 모든 자연이 ‘귀(歸)’하는 그 법칙을 ‘도(道)’라고 이른다. ‘도(道)’는 말 그대로 ‘길’이다.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도(道)’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길’은 같은 의미다.⁵⁾ 자연 상태의 길은 원근의 차이를 가질 뿐 결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도가적 사유에서는 자연의 한 부분인 시간마저도 ‘귀(歸)’하는 대상으로 파악한다.⁶⁾

이 같은 도가적 사유의 방법으로 성석제의 단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자연(自然)’과 ‘무위(無爲)’ 그리고 ‘선(善)’에 대한 도가적 이해와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한 인물 분석을 통해 본 ‘도(道)’의 행함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성석제 소설 분석에 주를 이룬 작품 내적인 연구⁷⁾에서 벗어나 도가철학에 기인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도가사상적(道家思想的) 이해의 기본적인 시점

우리가 도가(道家)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갖는 가장 큰 감정은 비현실성이다.

-
- 5) 일상에서 ‘도’와 ‘길’의 활용되는 예는 매우 많다. ‘길을 닦다’, ‘도를 닦다’ ‘길이 터지다’, ‘도가 터지다’ 등.
 6) 고대 동양에서는 해(年) 육십갑자에 해아렸다. 결국 시간 역시 60년 마다 같은 해가 돌아온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7) 성석제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도가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석제의 작품 속에서 이인이나 부작용자에 대한 분석이나 그러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김윤식, 「갈 데까지 간 사람과 공중에 뜬 어릿광대: 성석제와 전경린의 방법론 비판」, 《문학사상》, 1999년 1월호, pp.270~283.
 서영채, 「강패, 웃음, 이야기의 윤리: 성석제의 소설을 통해 본 태도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학동네》, 2003년 여름호, pp.322~342.
 우찬제, 「농담 혹은 이야기의 즐거움」, 《문화예술》, 2001년 2월호, 2001, pp.102~111.
 신수정, 「우리 시대 만가의 존재방식: 낯설기 그지없는 한 세계」, 《문학사상》, 1996년 10월호, pp.122~130.
 방민호, 「성석제 소설에 나타난 한국 소설에 두 전통」, 《서평문학》, 2002년 가을호, pp.15~20.
 이수형, 「참말과 거짓말: 이야기로서의 소설」, 《세계의 문학》, 2004년 봄호, pp.192~210.
 안남연, 「성석제 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pp.293~311.

산 속 깊은 곳에서 수도(修道)에 열중하며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사는 기인(奇人)이나 도사(道士)의 신비로운 모습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도가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반유가(反儒家)적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가장 큰 가치로 내걸었다. 유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본적인 성향 중에서 지향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나눈 다음, 그것을 명문화(明文化)하여 법규를 완성하였다. 그 법규가 바로 ‘체(禮)’이다. ‘체(禮)’를 숭상하는 인간을 가장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삼았으며 ‘체(禮)’가 완성된 인간을 ‘성인(聖人)’으로 받들고 그를 모델로 한 ‘학습’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와 발전을 추구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가의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사상은 현대까지도 가장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가치 추구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과 사회는 ‘진(進)’해야 한다는 유가의 입장은 질서와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 현대 사회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에서 제시하는 가치의 기준은 앞선 논리와는 매우 다르다. 도가는 법규(禮)의 학습을 통한 모범적인 인간상의 형성과 법규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성(聖)’이라는 도달점은 반드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 부류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될 것으로 믿었다. 더 나아가 노자는 분열이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그로인한 집단 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문명의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도가 사상은 동양사상의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은 공자 중심의 유가에 비판담론으로 사상의 체계를 형성해 갔다. 이들은 자연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였다. 스스로(自) 그러한(然) 것⁸⁾에는 ‘귀(歸)’의 본성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귀(歸)’의 본성을 철학적인 가치로 밝힌 것이 바로 ‘도(道)’이다. 즉 ‘도(道)’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도(道)’를 통하여 인간은 변화되는 자연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 방법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도가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

8) 이 장에서 말하는 自然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무, 강, 산 등의 의미와는 다르다. 물론 나무나 강, 산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지만 그런 명사의 의미보다는 원래 존재하는 근원 즉 시간이나 공간 또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다.

나 유가를 포함한 여타 학파는 ‘도’를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심각한 오류를 지적했다. 자연의 법칙도 인간이 언어나 문자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도가의 주장 역시 인간중심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⁹⁾ 언어나 문자화 된다는 것은 자연이 될 수 없다. 언어나 문자화 되는 순간 자연은 인간의 개념 속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언어나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가의 법칙(禮)이나 서양의 철학 또는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가치체계 안으로 들어와 분명한 형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철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언어적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

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

故有無相生，難易相成，張短相較，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

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爲而不恃。

功成而弗居，夫唯弗居，是以不去。¹⁰⁾

도덕경 제1장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편에서 ‘도(道)’는 어떠한 경우

9) 이런 반박에 대해 노자 道德經 제1장은 인간의 人爲로 ‘언어’ 또는 ‘문자’에 담기게 되는 ‘도’는 진정한 ‘道’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자 도덕경 제1장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道가 되어버린 道는 항상 道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출간된 책에는 거의 ‘말하거나 쓰여진 도’에 의미가 정설로 자리 잡고 있다. ‘名可名 非常名’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유가사상에서 추구하는 학습의 가치를 비판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학습은 결국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0) 하늘 아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하늘아래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이 선하다고만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과 짧음은 서로 겨루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러하므로 성인은 함이 없음의 일에 처하고 말이 없음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나는데 성인은 내가 그를 자라게 한다고 간섭함이 없고 잘 생성시키면서도 그 생성의 열매를 소유함이 없고 잘 되어가도록 하면서도 그것에 기대지 않는다. 대저 오로지 그 속에 살지 아니하니 영원히 살리로다. 노자 도덕경 제2장.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통나무, 1999, pp.112~113.

라 할지라도(언어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인위화한 것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인간의 가치한계에 편입시켜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유의 방법은 유가나 서양 철학의 시각으로는 본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가치의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언어나 문자로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그들의 방법으로 따져 본다면 도가의 이론은 매우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도덕경은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스스로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도덕경(道德經) 제2장이다. 미(美)와 악(惡), 선(善)과 불선(不善) 그리고 유(有)와 무(無), 어려움과 쉬움, 김과 짧음, 높음과 낮음, 노래와 소리, 앞과 뒤라는 상대되는 대상들의 본질은 그것들의 대립이 아니라 연결과 조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논리 하나를 발견 할 수 있다. 도덕경에는 미(美)의 상대 개념을 추(醜)라고 보지 않았고, 선(善)의 상대 개념을 악(惡)으로 보지 않았다. 도덕경에서 ‘미(美)’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것의 형태를 표현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惡)’는 싫은 것, 미운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또한 선의 상대 개념을 ‘악(惡)’으로 보지 않고 ‘불선(不善)’으로 본 것 역시 ‘선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을 뿐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될 수 없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도덕경의 논리를 따르자면 악(惡)의 상대개념은 부악(不惡)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치의 본질을 깨닫는 방법은 ‘학습과 가르침’이 아니라 함이 없는(無爲)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설명한다. 무위의 방법을 통한 진리의 깨침은 최고의 경지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영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편이라고도 여긴다. 결국 인간이 명명한 상반되는 개념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와 대립하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시 같은 하나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법칙 ‘귀(歸)’로 결론 내려진다. 자연이 스스로 ‘귀(歸)’하게 되는 진리에 인간의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무위(無爲)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위(無爲)를 ‘행(行)’하는 것이다. 인용문에 드러난 것과 같이 ‘성인은 함이 없음(無爲)의 일에 처하고, 말 없음(不言)의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하였다.

제3장 ‘부상현 사민부쟁(不常賢 使民不爭)’¹¹⁾편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행하지 않음을 행하는 것은 ‘무(無)’의 개념을 ‘공(空)’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각의 확대는 자연의 가장 큰 형상물인 ‘공(空)’에 대한 사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런 방법은 도덕경 제4장 ‘도충(道沖)’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자연’에서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가장 오래되고 넓은 개념의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은 비어 있을 뿐 결코 ‘없어’ 존재가 아니다.

道沖，而用之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解其紛：和其光，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象帝之先。

도는 허령하되 작용하면 다함이 없으니,

깊고 깊음이어. 만물의 으뜸인 듯하고,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얹힌 것을 풀며

빛을 누그러뜨리며 티끌과 함께한다.

모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음이어.

11) 不尙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不見可欲，使民心不亂。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尙使民無知無欲，使夫智者不敢爲也。爲無爲，則無不治。 현능을 높이지 않게 되면 백성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며, 갖고 싶은 소유욕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이로써 성인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하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또한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지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 노자 도덕경 제3장.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p.80.

12) 이경수, 『노자』, 길, 2007, p.48.

제4장 ‘도충’편은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 김용옥의 역은 다음과 같다.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그윽하다. 만물의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얹힘을 푸는구나.

그 빛의 땀이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네. 맑고 또 맑아라.

저기 있는 것 같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네’

혹 존재하는 듯하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니

하느님보다 먼저인 듯하다.¹²⁾

The way is empty.¹³⁾ 도는 비어있는 존재이다. 이는 모든 방법에 대한 가능성과 연결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Way’는 길이라는 의미 외에도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방법이 비어있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와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진다. ‘자연’의 법칙인 ‘도’는 인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방법이며 그로인해 모든 법칙은 연결구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어있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의 문제는 ‘가능성’이다. 유가의 짜여진 방법은 가능성을 내포할 수 없다. 이미 그것은 법칙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다른 사유의 방식은 위법이 된다. 그러나 도가에서는 비어있는 방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 노자 도덕경 주해자(註解者)의 한 명인 왕필¹⁴⁾은 다음과 같은 주를 붙여 놓았다.

‘夫 執一家量者，不能全家；執一國之量者，不能成國。窮力舉重，不能爲用’

‘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집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의 소유자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룩할 수가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무거운 것을 든다는 것은 결코 쓰임이 될 수가 없다’

왕필의 주는 노자가 말하는 비어있음의 의미를 잘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이해라 하겠다. 꼭 들어차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방법이야말로 무용(無用)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도가사상에서 보는 자연은 비어있음으로 언제나 열려있고 인위로 규정한 반대의 급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으로 노자 도덕경에 입각한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른 노자

13) 김용옥, 앞의 책, p.193.

14) 왕필(王弼), A.D. 226~249. 위나라의 천재 사상가. 만 23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함. 16세 때 『노자』의 주석을 달아 유명해짐. 왕필이 주석을 단 『노자』를 ‘王本’이라고 하며 가장 심오하고 널리 읽히는 주석으로 손꼽힘.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통나무, 1999, p.94 참조.

도덕경 제1장에서 제4장은 도가사상의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 즉 ‘도(道)’에 대한 총론(總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성석제 소설에 나타난 도가적 인물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하겠다.

3. 성석제 소설 속 도가적(道家的) 인물형의 이해

성석제가 작품에 흔히 등장시키는 인물들은 통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그들은 바보, 건달, चु꾼, 알코올 중독자, 노름꾼, 백수 등으로 사회의 질서와 발전을 저해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의 긍정적이지 못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그려진 이들 인물상은 대부분 유쾌함을 넘어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성석제의 작품이 가진 희극성은 작가의 타고난 언어 감각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작품 속 인물들의 몫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그의 단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주인공 ‘황만근’은 그의 작품 세계에 등장한 몇몇 바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경상도 북부 지방의 ‘신대리’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바보 ‘황만근’이 사라진 후 그의 약전(略傳)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傳)’ 형식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작가가 추구하는 소설 양식에서 그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 보통 전통적인 서사의 방법은 ‘전(傳)’과 ‘기(記)’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전(傳)’은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서술법이며 ‘기(記)’는 주로 사건의 진행 순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성석제는 작품에서 ‘전(傳)’의 방식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은척’ 마을 불세출의 깡패 조동관의 일대기를 그린 「조동관 약전」, 그리고 천하제일 미남 남가이의 생을 다룬 「천하제일 남가이」, 조선조 몰락한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록한 장편 「인간의 힘」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인물상이 아니다. 이것은 작가가 작품의 이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도인 ‘역설’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바보라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서

론에서 지적한 전통적 동아시아 소설의 ‘소(小)’가 내포한 ‘쓸모없고, 천박하고, 잡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 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작가의 소설은 근대 소설이 지향하는 합리성과 인과율, 계몽의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이야기문학의 전통 장르를 복귀 시켰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작가의 소설에는 유가적인 합리성을 강조한 인물보다는 도가적인 성격의 인물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¹⁵⁾

이렇듯 작가 스스로가 인물과 형식에 있어 보잘 것 없음을 전면에 내세운 까닭은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3장에 소개되는 “현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의 다툼없다”는 ‘부상현, 사민불쟁(不尙賢, 使民不爭)’의 정신과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환경과는 그 누구보다 조화롭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만든 바보 황만근의 가치는 그의 부재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황만근이 사라진 후 무료하도록 평화롭던 신대리 주민들은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황만근의 부재를 실감하고 그의 귀환을 기다리게 된다. 황만근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퍼 올린 분노를 스스로가 만든 공동 분노장으로 옮겨 충분히 삭힌 뒤 퇴비를 만들고 누구의 밭이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거름을 주었다. 이런 황만근의 모습은 분명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하지만 황만근의 선행은 결코 세상과 시대가 만든 법도의 학습을 통한 결과가 아니었다. 스스로(自) 그러한(然) 황만근의 본질인 것이다. 황만근을 제외한 신대리의 모든 이들은 황만근이 마을의 질서와 발전을 저해하는 인물이라 믿었지만 그가 부재한 마을에 남은 것은 수치를 모르는 이기심으로 인해 도리어 공동체의 삶이 후진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만다. 황만근이 없는 마을에서는 누구도 공동의 작업에 발 벗고 나서지 않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처해지는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황만근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효자이며 아내에게는 따뜻한 남편이기도 했다. 또한 아들에게도 굳이 위계의 질서를 요구하지 않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주목할 점은 황만근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이는 작가가 원하는 인물상의 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한다.

15) 한수영, 앞의 책, p.164.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당연 확대, 확장된 다른 사회도 철저한 질서의 유지를 숭상하게 된다. 하지만 유복자로 태어난 황만근은 그런 유가적 질서 체계를 학습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는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스스로가 터득하였고 계산에 의한 철저한 결과의 도출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그의 인간상은 도가적 인물의 전형이 된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禮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삶다 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궂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중략…)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데 인정없는 대쳐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쟁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재석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병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굵신굵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¹⁶⁾

비록 황만근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신이 소속된 그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도 완벽한 자기소임을 소화해 낸다. 인간의 가치체계 안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의 순리대로 생각하고 삶을 영위할 줄 알았다. 작가는 작품의 곳곳에서 황만근이 학습을 통해 이치를 깨우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덕경 제 1장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작품 속 황만근의 삶은 어떠한 순간에도 ‘정도(正道)’를 걷는다. 도리어 그의 주변인들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이기적이기만 하다. 황만근은 규정된 법규를 따

16)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창작과비평사, 2002, p.29.

르지 않는다.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스승도 없었다. 그러나 황만근은 진정한 도(道), 즉 자연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신대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황만근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나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비록 황만근이 엄숙하고 진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聖人)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유가에서 주장하는 명문화된 禮의 철저한 학습을 통해 성이(聖人)이 만들어진다는 그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본고는 작가의 창작 태도가 권위주의와 엄숙주의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이런 창작의 정신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이 고행의 길이 아니라 자유롭고 즐거움의 여행이라는 느낌을 주게 한다고 주장했다. 황만근의 삶은 이러한 작가의 정신과 일치한다. 황만근은 비록 바보라서 지식은 없지만 삶의 진리를 일깨워준다. 마찬가지로 작가의 ‘웃긴’ 이야기는 문학의 권위나 엄숙을 앞세우지 않지만 문학이 가진 즐거움의 영역을 밝혀 준다.

한편, 황만근은 마을 이장의 강요에 의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결기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아무도 따르지 않는 투쟁 방침에 따라 혼자 경운기를 몰고 백리길이나 떨어진 군청으로 향한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군청 앞의 행사는 끝이 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만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정작 황만근에게는 단 한 푼의 빚도 없었다. 다음은 황만근이 죽기 전날 밤 마을주민 ‘민순정’과 나눈 대화를 간추린 것이다.

“참 푹푹하기 잘도 돈다.”

“뭘까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밭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푹푹푹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 기요.”

(...중략...)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중략...)

“기계화영농 카터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맞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콧

바인, 이양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 봐야 그 빛 값느라고 정신없다.”

(…중략…)

“그런 기 다 쌀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 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렁구리로 만든다.”

(…중략…)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 마이가?”

(…중략…)

“내가 왜 빛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개.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면서 안 망하고 백년을 살리라.”¹⁷⁾

황만근이 주장하는 삶의 방법의 도덕경 제3장에 등장하는 ‘尙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의 이론에 다름 아니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이른바 지자(知者)로 하여금 아무것도 감히 하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배움 없이도 황만근은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빛 한 톨 내지 않고 망하지 않으며 백년을 살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이미 ‘無爲’와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를 실천하는 聖人의 경지에 이르렀음 엿볼 수 있다. 유가에서 성인이란 학습을 통해 ‘禮’를 완성한 모범적인 인물형을 말한다. 반면,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은 道를 실천하는 哲人이며, 완벽한 도의 구현자다.¹⁸⁾ 이는 유가의 聖인과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일상에서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유가에서 성인은

17) 위의 책, pp.36~38.

18) 김용옥, 앞의 책, p.130.

민중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멀다. 그들이 따라야 할 법규는 복잡하고 학습은 난해하다. 그러나 도가의 성인은 일상과 매우 가깝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깨우친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황만근이 자신의 道를 이야기하면서 ‘天文의 능력’에 대한 의견을 펼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별은 참 똑똑하며 시계와 같이 언제나 일정하게 들고 난다’는 그의 이야기는 인위적 시간을 따르지 않고 자연의 시간을 읽을 줄 아는 황만근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작가는 ‘바보 황만근’의 능력을 소개함으로써 수많은 정보와 기계화에 길들여져 어느 틈엔가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자연을 볼 줄 모르는 현대인들을 비판한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연 위에 군림하려는 무모한 욕심에 대한 충고이기도 하다.

한 집에 일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면 면세유는 한 대분 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중략...)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신심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¹⁹⁾

도덕경 제3장 ‘도충(道冲)’편은 우리에게 ‘빚’의 소중함을 말한다. ‘빚’은 곧 ‘공

19) 성석제, 앞의 책, p.37.

간'을 의미한다. 자연의 생산물 중 가장 크고 범위가 넓은 이 '공간'은 모든 사물의 공통된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황만근은 현재 농촌이 빛에 쪼들리게 된 배경과 그것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충(道冲)'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빛을 내서라도 무엇이든지 채우려고만 하는 현대인의 작태는 결국 인위의 포화상태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영농의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던 문명의 이기로 가득 찬 농촌의 창고는 그 이기로 인해 도리어 단 한 발짝도 앞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뿐만 아니라 인위(人爲)를 조장한 국가마저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규에 의해 위기에 내몰린 농촌의 현실을 자신이 실천하는 자연의 방법으로 타개할 것을 주장하는 황만근의 모습은 도가적 지도상의 표본이 된다. 황만근은 '체(禮)'를 배우지 못했지만 '도(道)'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비록 그는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 뿌린 내린 유가적 교육방침인 '체(禮)'와 그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인 '진(進)'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자연이 지향하는 '도(道)'를 숭상하고 만물이 '귀(歸)'하는 이치를 깨닫고 있다. 세상이 만든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그의 진리를 따르는 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단 한 톨의 빛도 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천업을 오래도록 이어 가리라 확신한다.

황만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중략...)

아아, 선생이 좀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흑염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

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²⁰⁾

소설 속 인물의 형상은 작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다름 아니다. 성석제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황만근을 비롯한 몇몇 도가적 성향의 인물들은 시대가 만든 가치의 발견이나 실현과는 무관하다. 그 동안 다른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추구한 가치 발견이나 실현들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며 ‘소설의 길’이라는 오랜 통념은 성석제가 만든 인물들로 여지없이 무너졌다.²¹⁾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독자들은 관성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되돌아 갈 곳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자연으로의 회귀가 사회의 질서 속에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성석제의 단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드러난 인물의 도가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도가는 ‘귀(歸)’의 실천을 가장 큰 삶의 지혜로 여긴다. 유가가 내세우는 사회의 발전과 질서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진(進)’의 논리에 대한 비판담론의 세력으로 우주의 운행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삶 역시도 자연의 법칙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자연의 법칙이 곧 ‘도(道)’이다. 인간중심사상에서 벗어난 인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가치체계 안에서 굳어진 진리를 헛된 것이라 인식한다.

시대의 질서를 따르지 못했던 황만근은 ‘바보’였다. 그러나 자연의 시각으로 돌이켜 본 황만근은 ‘성인(聖人)’이었다. 인간의 ‘선(善)’함이 결코 학습을 통해

20) 성석제, 앞의 책, pp.39~40.

21) 정호웅, 『새로운 문체미학』, 창작과비평사, 2002, p.298.

만들어 진다는 유가의 주장은 황만근의 삶을 통해 여지 없이 무너진다. 유복자로 태어나 유교적 사회질서를 공부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정성으로 받들었다. 아들에게도 위계의 질서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 친함이 어느 가정 못지 않았다. 공동체 삶의 발전을 위한 자기희생에도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공평한 행정력을 가진 조용한 지도자였다. 이런 그의 사회성은 노자 도덕경의 가르침과 한 치 어긋남이 없었다. 현명을 숭상하지 않아 백성의 다툼이 없게 하자는 ‘부상현 사민부쟁(不尙賢, 使民不爭)’과 공이 이루어져도 그 공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의 정신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웃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다.

뿐만 아니라 황만근은 ‘도충’의 진리를 깨달아 ‘빔’의 도를 실천하면서 재정의 자립을 이룩하였다. 현재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의 실태를 밝은 눈으로 읽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인위(人爲)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해지리라 믿었던 세상의 어긋남에 날카로운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소설 속에서 황만근이 보여준 도가적 삶의 표본은 성석제의 소설을 바라보는 의식에 기인한다. 성석제의 소설쓰기는 그 자체가 도가적이다.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가치기준으로 돌아간 그의 작은(小) 이야기(說)적 양식 역시 도가가 주장하는 ‘귀(歸)’의 실천과 맥락이 닿아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대 소설이 가진 엄숙함과 진지함 그리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러한 글쓰기는 독자로 하여금 소설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앞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고행이 아니라 자유로운 즐거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였다.

참고문헌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창작과비평사, 2002.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통나무, 1999.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신영복, 『강의』, 돌베개, 2004.

이강수, 『노자』, 길, 2007.

정호웅, 『새로운 문체미학』, 창작과비평사, 2002.

김윤식, 「갈 데까지 간 사람과 공중에 뜬 어릿광대 : 성석제와 전경린의 방법론 비판」,
《문학사상》, 1999년 1월호.

방민호, 「성석제 소설에 나타난 한국 소설에 두 전통」, 《서평문학》, 2002년 가을호.

서영채, 「깡패, 웃음, 이야기의 윤리 : 성석제의 소설을 통해 본 태도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학동네》, 2003년 여름호.

신수정, 「우리 시대 만가의 존재방식 : 낯설기 그지없는 한 세계」, 《문학사상》, 1996년
10월호.

안남연, 「성석제 소설에 나타난 인물 유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2집, 한국어문학
연구학회, 2004.

우찬제, 「농담 혹은 이야기의 즐거움」, 《문화예술》, 2001년 2월호.

이수형, 「참말과 거짓말 : 이야기로서의 소설」, 《세계의 문학》, 2004년 봄호.

진정석, 「길 위의 소설, 소설의 길」,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한수영, 「웃음에 관한 두 개의 변주」, 《오늘의 문예비평》, 2003년 여름호.

Abstract

A study on the Taoistic Comprehension
of **Seong SeockJae**'s novel

Kim, Dong-hyeok

This thesis is about Taoistic features of several characters in **Seong SeockJae**'s novel named 「**Hwang ManGeun** said so」. Taoist regards 'return to nature' as the most valuable wisdom of life. **Hwang ManGeun** is the one who thoroughly keeps Taoistic life even though he is in trouble adjusting to a social system in his society.

Hwang ManGeun has two different kinds of spirit. He believes people would be peaceful if they don't pursue the value of wisdom (from **Lao-Tse's DoDukKyeong**). The other belief is although people achieve something, they don't try to get the profit of that achievement. This is the basic mind that **Hwang ManGeun** has and is how he manages society and neighborhood. In addition he practices the spirit of emptiness and criticizes the world which is suffering in poverty by greediness.

Author's viewpoint toward the world corresponds with the viewpoint of characters in his or her novel. **Seong SeockJae**'s writing is totally Taoistic itself. "Small Talk" is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of novel and is the same as the value of Taoist - returning to nature. This way of writing makes readers feel more comfortable and makes them realize that novels are in pleasure, not in seriousness.

주제어 : 도가적 특징(taoistic feature), 노자 도덕경(Lao-Tse's Dodukkyeong), 작가의 관
점(author's viewpoint), 도가적 글쓰기(writing of taoistic), 작은 이야기(small
talk), 소설의 본질(the essential of novel)